

흔비백산 300척 추격... 25분만에 4척 나포

군산해경, 中 불법어업 단속
1박2일 동행취재...현장 르포

도주 어선 세우고 조타실 장악
강력 제압에 흥포한 대응 못해

“2km 전방, 중국어선 6척,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중. 함수 전방으로...”

지난 15일 오후 6시10분께 군산항 남서쪽 190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하던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3000t급 경비함인 '3010함'(함장 김국성) 조타실이 갑자기 바빠졌다. 레이더에 EEZ를 침범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300척이 포착되면서 직원들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졌다. <관련기사 6면>
김 함장은 순간 마이크를 잡고 “출동 대기” 명령을 내렸다. 대원들은 군산해경 상황실에 긴급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레이더 모니터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채증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3010함·1508함(1500t급) 등 우리 측 경비함을 본 듯, 중국어선들이 5~6척씩 편대를 이루면서 도주를 시작했다. 기상 여건도 중국어선들의 저항만큼이나 사나웠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의 파고는 1.5m~2m. 체감 풍속 18m/s에 시정거리 2km로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함장은 중국어선 300척을 모두 나포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즉시 효과적 단속 방법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편대에서 이탈한 쌍끌이 중국어선 두 척을 타깃으로 정했다. 해당 중국어선은 3010함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동중으로, 우리 측 해역을 30km 정도 침범한 상태였다.



“꼼짝마” 16일 새벽 3시께 군산해경이 군산항에서 남서쪽 190km 지점에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중이던 무허가 중국어선(요단어 2668호·200t급) 선장을 검거한 뒤 고속단정으로 연행하고 있다. /군산=김진수기자 jeans@

16일 쌍타망 금어기 해제...물려드는 中 어선에 서해 긴장

김 함장의 지시에 해경특구대원 16명이 고속단정 두 척에 나눠 났다. 이들은 고무탄이 발사되는 20mm·40mm 6연발 유탄발사기와 전자총격기·K5 권총·섬광폭음탄 등으로 중무장했다.

220t급 쌍끌이 어선인 ‘요단어 23118호’(중선)에 접안한 대원들은 정선명령을 내렸다. 중국어선 선장은 불응하고 도주를 시작했다. 20~30m 떨어져 있던 주선 ‘민하어 6253호’(주선)도 그물을 끌어 올린 뒤 중국어선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도주하는 ‘요단어 23118호’에

폭음탄을 발사하고 갑판에 있던 중국 선원들이 놀라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날렵하게 배 위로 올라탔다. 한 대원이 순간 발을 헛디뎠다. 위험한 순간, 함께 다른 대원이 재빨리 움직였다.

“조타실을 장악해. 우현으로 돌아...” ‘요단어 23118호’에 승선한 이남곤(42) 경사의 짧고 굵은 목소리가 어두운 밤 갑판에 울렸다. 이어 다른 대원이 조타실로 재빨리 진입, 엔진을 정지시키고 나머지는 저항하려는 중국 선원을 제압했다. 작전 개시 25분 만이다. 다행히 불법 조업 어선

에 대한 해경의 강력한 작전 소식이 전해진 듯 우려했던 흥포한 대응은 없었다.

예상대로 중국어선에는 우리측 해역에서 잡아올린 물고기가 가득했다. 해경은 불과 3시간여 만에 양미리 2500kg을 잡아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선장 동모(28)씨는 “불법인줄 알지만 모선 선장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중국해역엔 잡을 물고기가 없다 보니, 한국해역에서 어획활동을 하고 있다”고 불법 조업 사실을 순수히 인정했다.

해경은 이날 경비함 17척을 동원, 불법 조업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

/군산해경 3010함=이종형기자 golee@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라!

- 일시: 2014. 10. 19(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 민 수

감싸는 與·때리는 野... 뒤바뀐 광주시 국감

새누리 “예산 적극 지원하겠다”...새정치 “업무과외 제대로 하라”

16일 ‘야당 심장부’인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덕담을 건네며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간 반면 한 식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예상외로 강도높은 송곳질문을 쏟아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과거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텃밭인 광주를 집중 공격하고, 야당 의원은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입장이 바뀐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3면>

기자 출신인 서정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광주는 민주화운동의 메카이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회부 기자로 광주에서 취재하면서 광주시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높은 도덕성 등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아직

도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여된 600명이 보상을 받지 못했고, 관련 지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법이 통과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이 끝나면 국회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데, 새누리당이 광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덕담을 건넸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가을... 두 바퀴의 사랑

‘2014 Green 자전거 축제’ 11월 8일 영산강 일원

영산강변의 정겨움을 느끼고, 가족애를 나누며 남도의 가을을 체험하는 ‘2014 Green 자전거 축제’가 11월 8일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교)와 승촌보, 영산대교 일원에서 열립니다. 자전거축제는 크게 ▲자전거대행진(사랑코스(45km) ▲자전거대행진 행복코스(25km) ▲백일장 대회(초등부, 중등부)로 나눠 진행됩니다. (전부 무료)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 시작해 서창교~승

촌보~나주대교~영산대교~승촌보~서창대교~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 구간에서 열립니다.

백일장 행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산문과 운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늦가을 정취 속에서 가족과 함께 영산강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 일시 : 2014년 11월 8일(토) 오전9시
- * 장소 :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교)
- * 종목 : 자전거대행진, 백일장대회
- * 참가 : 전 종목 무료, 사전 선착순 접수
- 주최 : 광주일보사
- 주관 : 광주광역시사이클연맹, 자전거사랑전국연합광주본부
-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접수 : 자전거행진 / 062-371-3112(자전거사랑전국연합광주본부) 백일장대회 / 062-220-0541(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光州日報社

김무성 ‘중국發 개헌론’ 연말정국 달구나

“붓물 터지면 막을 길 없을 것”

우윤근 “환영한다” 적극 동의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불가’ 쟁기발언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대표가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서면서 연말께 개헌론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속소인 홍치아오(紅鵝) 영빈관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붓물 터지고, 붓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선호하는 권력 구조 형태로 외교·국방과 내치를 분권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정리된 듯한 개헌구상까지 제시했다.

야당 쪽은 김 대표의 발언을 반겼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는 “환영한다”고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개헌 시기를 2016년 총선 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들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고, 아직 차기 대선까지는 2년 넘게 남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설립
60주년 기념 감사예배
일시: 10월21일(화) 오전10시 40분
장소: 광신대 은혜관 3층 대예배실
문의: 062)605-1000

끌어올리세요
당신의 아름다움
헤라 모디파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헤라 모디파이어- 탄력의 중심에 작용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로 한 차원 올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시선이 향합니다

HERA
MODIFIER
Cell-Bio Layer Balm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유명매체침이나 이모러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4(수신요금부담) www.hera.co.kr